

죽음에서 부활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도들은 너무 놀라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들 앞에서 변모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상상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서는 놀라는 그들에게 "내가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의 놀라움은 곧 혼란으로 바뀌었습니다. "죽음에서 되살아 나다니" 이게 무슨 뜻일까? 성경은 사도들이 진정으로 이 물음을 이해할 수 없어 얼마나 혼란스러워 했는지를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들이 계속해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라고 질문하면서 얼마나 혼란스러워 했을지 상상이 됩니다.

이 부활 시기에 우리는 이 질문을 너무 빨리 잊으려무심히 흘려듣는 것은 아닐까요? 물론, 우리는 죽음에서 되살아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사도들 처럼 이 질문을 생각해 보고, 그리고 우리의 회칙과 관련하여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회칙은 완전히 죽고 되살아나는 것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약한 것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매일 죽고 되살아납니다.

회칙은 머리말로 부터 시작해 모든 조항에서, 우리에게 하루하루 매 순간 회개하기를, 즉 자아를 버리고 일어나서 항상 그리스도와 일치되기를 요구합니다. 이 회년 기간 동안 회칙 인준 40 주년을 축하하면서, 우리가 서약한 것을 다시 살펴봅시다. 우리의 회칙을 연구하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시다.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나는 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인가? "

오소서 성령이여, 회칙이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뜻하는지를 새롭게 하도록 고무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매일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도록 은총을 주십시오!

저는 1978 년의 회칙이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하여 전 국가 형제회의 역사가인 Bill Wicks 에게 이야기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의 기사가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이 선물을 감사히 여기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